

근대건축물의 상업용도 활용사례에 나타난 내부공간 디자인 수법에 관한 연구

- 교토(京都)시의 '미나미좌(南座)'와 '신푸우칸(新風館)'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erior Design Method applied to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Modern Architectures

- "Minami-za" and "Shinpu-kan" in Kyoto -

임태희* / Lim, Taehee

Abstract

Careful attentions should be paid on the renovation of historical building, not only because it conservations architectural heritages by affording new roles of the present days, but also determine their successive value in the stream of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ies. Among drastically-increasing interest in the remodeling of the modern architecture in Korea, it is meaningful to research the cases in Japan since there are precedent, accumulative, and ample example of lengthened time.

In this paper, two examples with different renovation concept, 'harmony' and 'confrontation' are compared. "Minami-za" is the typical example to harmonize the present requirement with the original purpose and the memories of the buildings, where the use and the design are preserved. On the contrary, "Shinpu-kan" is exemplified as confrontation where everything except the facade and the structure was remodeled.

It is suggested to understand 'harmony' and 'confrontation' as a way to the coexistence of 'new' and 'old' on the basic of the historical meaning of architectures, not only as a design trend.

키워드 : 보존, 리노베이션, 근대건축, 일본, 조화, 대립

Keywords : Conservation, Renovation, Modern Architecture, Japan, Harmony, Opposition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역사적 건축물의 재활용에 따르는 리노베이션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근대 건축역사에 대한 선입견 속에서도 사라져 가는 건축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현대의 요구에 맞게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업이다. 뿐만 아니라, 개수 이후의 건축물의 역사적인 가치와 유용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보다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하는 작업이다. 최근에 도입된 등록문화재의 시행은 앞으로 많은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재활용에 따른 리노베이션 사례가 증대되는 계기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무작정 건축 외부만 남기고 내부 공간은 마음대로 개조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왜 남길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 건축물의 리노베이션은 신축 이상의 디자인적인 창의력과, 기술적인 문제 해결 능력도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보다 선행하고 있는 외국 사례의 분석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표면적인 디자인적인 수법만이 아니라, 무엇이 남겨지기를 요구되어졌었는가, 요구된 사항은 어떻게 남겨졌는가,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일본에서도 등록문화재가 제일 먼저 시행된 교토시의 등록문화재의 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인 "미나미좌"와 "신푸우칸"을 대상으로, 내부공간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적인 수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근대건축물의 리노베이션에 있어서 그 디자인 수법은 다양하지만, 크게 나누어 본다면 기존의 건축물 디자인에 「동화」

* 정희원, Kyoto Institute of Technology, Dept of Architecture and design 박사과정

하는 디자인 수법과, 「대비」하는 디자인 수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토시에 있는 근대건축물의 상업 용도로 리노베이션 된 사례 중에서 구건축물의 디자인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간 대표적인 사례를 꼽자면 ‘미나미좌(南座)’를, 구건축물의 디자인에 대립하는 요소를 부가하는 디자인 수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신푸우칸(新風館)’을 들 수 있다. 이 두 사례를 「동화」와 「대비」의 대표적인 연구대상으로 정하고 분석하기로 한다. 더욱이, ‘미나미좌’와 ‘신푸우칸’은 교토뿐만이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선례로서 건축전문 매체에서의 관심을 받은 사례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일본에서 발행된 근대건축에 관한 단행본과 건축 전문잡지를 중심으로 문헌조사를 행하였다. 그러나 문헌조사만으로 기술적인 측면과 운영적 측면을 전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객관적인 파악을 위해 현지 조사와 각종 보고서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행정적 자료조사를 위해서는 교토시의 ‘문화재 보호과’의 조언과 협력이 있었다.

연구 방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기초적인 이해를 위해서 일본에서의 「동화」와 「대비」적인 건축보존 개념의 범위와 경향을 살펴본다.

둘째, 연구 대상인 ‘미나미좌’와 ‘신푸우칸’의 역사적인 의의를 이해하고, 교토시라고 하는 도시의 문맥 안에서의 위치와 관계성을 문헌조사를 통해서 파악한다.

셋째, 개수후의 디자인과 건축 외부와 내부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면과 문헌을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변용, 지속된 부분에 대해 분석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검증하기로 한다.

2. 「동화」와 「대비」의 디자인적 경향

‘타하라 유키오’의 저서 『건축의 보존디자인』¹⁾을 보면 보존 디자인의 수법을 수복의 수법, 치환의 수법, 부가의 수법, 새로운 수법으로 나누고 있으며, ‘오오카와 나옴이’의 편저 『역사적 유산의 보존과 활용』²⁾을 보면 2.2절 「근대에 지어진 건축의 보존·재생기법」³⁾이라는 항목에서 “3. 근대건축의 재생의 전개와 그 수법”에서 크게는 전면보존과 부분적 보존으로 나누고 있다. 리노베이션의 경우는 부분 보존에 가까우므로 부분보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파사드 보존, 외피 보존, 인테리어 보존, 엘리먼트 보존, 이미지 보존, 신구병치에 의한 보존으로 나누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도 편저자의 기준과 관점에 따라서 보존의 디자인 방법이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리노베이션

의 경우, 개수되는 부분을 기존의 남겨지는 부분과의 관계성이라는 관점에서 디자인의 출발이 전개된다고 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보존되어지는 부분에 「동화」하는 디자인 수법과 「대비」하는 디자인 수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1. 「동화」

「동화」라는 디자인 수법은 역사적인 건축물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사용함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를 융화시키는 디자인 수법으로, <과거>라고 하는 구건축물이 완성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건축물로서 보고, 구건축물에 어울리게 새롭게 요구되는 부분의 디자인을 결정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겠다. 건축형태와의 동화, 재료의 동화 등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1970년대를 대표하는 사례로는 ‘쿠라시키(倉敷) 아이비 스퀘어(1974)’와 교토의 ‘나카교(中京) 우체국(1978)’을 들 수 있으며, 그 중에서 나카교 우체국의 경우에는 규모가 있는 근대건축물 중에서 일본 전국에서 처음으로 파사드 보존이 적용된 사례이다. ‘DN타워(1995)’는 구건축물을 보존함에 따라 얻게 된 용적을 보너스로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뒤에 형1” 조화를 둔 신축건물을 증축시킨 사례이다. 그 외에도 ‘요코하·개항 자료관(1981)’, ‘코베 세관(1999)’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1> DN 타워



<그림 2> 나카교 우체국



<그림 3> 코베 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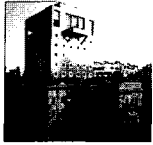
2.2. 「대비」

「대비」적인 디자인 수법은 「동화」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수법과는 반대로, <과거>의 역사적 건축물과는 이질적인 요소의 삽입, 또는 병존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인 건축물에 건축가가 손을 댈 때에 현대 기술과 디자인에 의해 대비 시키는 디자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 그 수가 많아지고 있다.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이 박물관적인 보존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용되는 추세와 상관이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등록 문화재의 도입과도 상관이 있다고 하겠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오차노미즈(お茶の水) 스퀘어A(1987)관’, ‘일본화재 요코하마(横浜)빌딩(1989)’, ‘신푸우칸(2001)’, ‘국제 어린이 도서관(2002)’ 등을 들 수 있다.

1) 田原幸夫, 建築の保存デザイン, 學藝出版, 2003

2) 大河直射, 歴史的遺産の保存・活用とまちづくり, 學藝出版社, 1997

3) 우매즈 아키코(梅津幸子) 미노다 히로코(巖田ひろ子) (近代に建てられた建築の保存・再生の技法) p.114



<그림 4>
오차노 미즈
스퀘어 A관



<그림 5>
일본화재橫
濱빌딩



<그림 6>
국제어린이도서관

3. 구 건축물의 역사적 의의와 개수방침

3.1. 「미나미좌」

(1) 구 건축물의 역사적 의의

‘미나미좌’의 전신은 목조 3층 건물에 건평 319평로부터 출발하게 되다. 1906년 신흥 흥행자본이었던 ‘쇼우치쿠(松竹)’⁴⁾가 미나미좌를 소유하게 되면서 1928년 신축계획이 입안된다. 당시부터 기존의 인습을 타파한 근대적 경영 방침을 도입해온 ‘쇼우치쿠’는 기존의 ‘카부키(歌舞伎)’⁵⁾ 세계에서는 새로운 변혁이었다.⁶⁾ 이는 철근 콘크리트 5층 건물이라고 하는 당시의 극장 건축으로는 예가 없는 규모와, 당시 일반적이었던 타다미식의 좌석배치를 의자식으로 채용했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설계와 시공은 당시 교토에서 활약하던 ‘시라하세(白波瀬)공무점(工務店)’이 맡아서 설계한다.

공사기간은 매년 연말에 공연되는 가오미세(顔見世)⁷⁾라는 카부키 공연을 거르지 않고 공연하기 위해서 가오미세공연의 개막전까지라는 전제조건이 달리게 되어 채 1년이 안되는 단시일로 1928년의 공연 직후인 12월 말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가서 후년인 1929년 11월 20일 준공이라는 단시간에 공사가 진행된다.

<그림 7, 8, 9>에서도 보여지 듯, ‘미나미좌’는 메이지(明治)시대⁸⁾, 타이쇼(大正)시대⁹⁾, 쇼와(昭和)시대¹⁰⁾를 거치면서도 같은 건축양식을 취해 왔다. 이점은 이번의 전면 개수 방침에도 적용된다. 건축양식은 「모모야마 양식(桃山様式)」¹¹⁾이며, 실내공간은 모모야마 시대의 의장을 비롯하여 중궁풍 장식 일부가 보여 지기도 한다. 조명 등의 국부적인 요소에서는 아르데

4) 쇼치쿠(松竹)는 교토에서 카부키를 중심으로 한 연극흥행단체로 1895년 12월에 창업하였다. 1920년부터는 영화 제작과 흥행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5) 에도시대(江戸時代) 서민의 예능으로 시작하여 현대까지 약 400년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가부키라는 말은 가부쿠[傾く]라는 동사가 명사화 한 것이다. 근세 초기 고료에(御霊會)라는 종교행사와 함께 후류오도리(風流踊)라고 부르는 예능이 유행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이즈모노 오쿠니(出雲阿國)라는 여자가 교토에서 가무를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다. 동아백과사전

6) 石田潤一郎, “ある挽歌のために-南座”, 「商店建築」, 1989. 12

7) 카부키(歌舞伎)에서 일진 가부키 배우들이 총 출연하는 극을 말한다. -三省堂제공 「大辭林 제2판」

8) 메이지(明治) 1년(1868) - 메이지(明治) 45년(1912)

9) 타이쇼(大正) 1년(1912) - 타이쇼(大正) 15년(1926)

10) 쇼와(昭和) 1년(1926) - 쇼와(昭和) 64년(1989)

11) 16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서 성곽건축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유행하였던 양식으로 호화롭고 장식적인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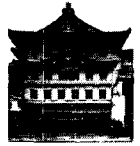
코적인 장식이 사용되었으며, 건물 전체적으로는 양풍 건축의 스케일감이 느껴진다. 전체 구조형식은 근대의 대표적인 재료인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전통적인 표현이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림 7>
메이지-南座



<그림 8>
타이쇼-南座



<그림 9>
쇼와-南座

(2) 개수방침

1989년 9월에 구미나미좌는 전면 개수 방침을 세운다. 그러나 신축 할 것인지 개축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도 그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 「京都新聞」에서 이를 기사화¹²⁾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지역주민들의 보존에 대한 여론의 소리가 커지게 된다. 이러한 보존 운동은 신축인가 개축인가를 놓고 고민하던 ‘쇼우치쿠’로 하여금 건축물을 보존하면서 내부공간을 중심으로 리노베이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굳히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설계는 ‘스기야마 타카시(杉山隆)건축설계 사무소’의 ‘이마자토 타카시(今里隆)’가 맡는다. 개수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인 ‘쇼우치쿠’가 요구한 사항은 「본격적인 뮤지컬 공연에도 대응이 가능 할 것」이라는 한마디의 사항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 전문잡지인 ‘신켄치쿠 「新建築」」¹³⁾에 게재된 ‘신미나미좌’의 작품개재와 기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낙스 리포트(INAX REPORT)」에 특집¹⁴⁾으로 소개된 미나미좌에 관한 기사 중에서 설계자인 ‘이마자토 타카시’와 ‘우찌이 쇼조’의 대담내용에서도 잘 알 수 있었다.

우찌이: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수리에 대한 요구이외에 특별한 기능이 요구되지는 않았는지?”

이마자토: “뮤지컬이 될 정도로, 어느 정도 다목적으로 할것을 생각했다. 현실적으로 ‘洋(오페라)’는 실현되기 어렵겠지만, ‘和(카 부키 이외에도)’가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극장으로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그대로의 무대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명, 음향 등 전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다.”

‘카부키’를 위한 근대적인 공연시설로 개수한다는 단 하나의 요청은, 실질적으로는 근대적인 공연시설로의 개수는 결과적으

12) 1989년 9월 28일, 京都新聞, “南座60年の花道”

이외에도 지역 신문인 교토 신문을 중심으로 미나미좌(南座)의 개수에 관한 기사가 아래와 같이 소개 되었다.

1989년 9월 21일, 京都新聞 南座 本格改修へ

1991년 10월 8일 京都新聞, 『昭和の南座』

13) 「新建築」, 1992.12 p.297

14) INAX REPORT, 1994.12, no115, p.16 「現場が設計の場」即断即決で極めた京都 南座

로는 현대적인 시설과 설비의 설치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는 전면적으로 내부공간을 개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르게 된다.

3.2. 「신푸우칸」

(1) 구 건축물의 역사적 의의

타이쇼 말기에 건설된 교토중앙전화국은, 근대기 교토의 비즈니스가라고 할 수 있는 '카라스마(鳥丸)산조(三條)'의 교차점에 통신성 기술사였던 '요시다 테츠로(吉田鐵郎)'¹⁵⁾의 설계에 의해서 건축되었다.

공사는 크게 2회에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1기는 1925년 2월에 기공하여 다음해 9월에 준공하며, 2기는 1929년 5월에서 기공하여 1931년 1월에 준공되었다. 연면적 6,739㎡ 평면 형태는 중정을 가지고 있는 'ㄱ'자 형태로 동측의 남북방향의 동만이 조금 더 길게 뻗어 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러일 전쟁 이후, 급증했던 전화의 수요에 설비로 인해 확장되었던 일본의 전화국은 1960년대 후반부터 크로스바 형식의 채용으로 소형화가 되고, 1980년대 이후에는 디지털식 전화교환기가 보급되면서 집약화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서 많은 전화국 스페이스가 불필요한 공간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중앙전화국이었던 '신푸우칸' 역시 1900년대 초기 전화국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NTT¹⁶⁾는 개축계획을 세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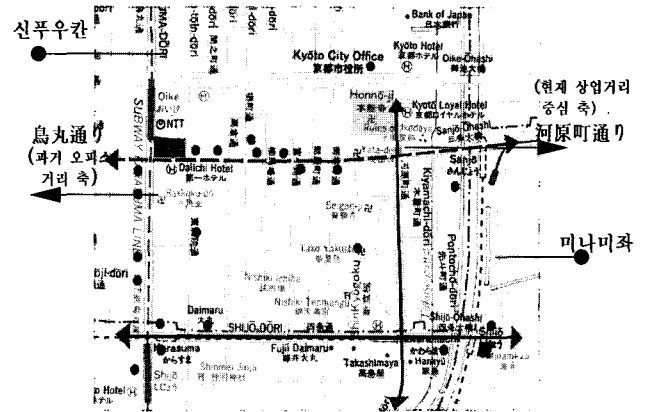
(2) 개수방침

'신푸우칸'의 경우는 소유주인 NTT가 자회사인 'NTT도시개발'¹⁷⁾에 '구교토중앙전화국' 재활용과 재개발에 관해 의뢰하는 것에서 리노베이션 계획이 시작되게 된다. 당시의 'NTT도시개발'에 요구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교토시 중심부의 기존거리풍경의 조화를 이룰 것.
- 거리의 양태를 읽고, 거리와 함께 발전해 가는 거리를 만들어 나갈 것.
- 장래의 대규모 복합개발을 주시한 10년간의 프로젝트로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
- 교토시의 등록문화재 1호인 「구교토중앙전화국」을 보존하면서 활용할 것.
- 이상과 같은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교토중앙전화국'은 지금까지 교토의 상공간의 중심이 되어왔던, '시조가와라카치(四條河原町)'를 중심으로 한 '가와라마치거리(河原町通り)'에서

15) 요시다 테츠로(吉田鐵郎), 1894-1956, 1919년 동경제국대학 공학부 건축과를 졸업한 후, 통신성에 입사해서 이른바 통신성 건축 전성시대의 한 획을 그은 인물로 일본 근대건축의 보급에 큰 영향을 끼쳤다.
 16) 일본에서는 1985년에 전화국의 민영화가 시작되면서 NTT(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로 이름이 바뀐다.
 17) 우편체신국 이었던 시기부터 건축부서로 존재 해 왔으나, 민영화 되면서 독립된 회사로 분리되어 'NTT도시개발'이 된다.

조금 떨어진 입지 조건을, 신푸우칸을 핵으로 해서 가와라마치거리와 역사적으로 비즈니스 거리였던 '카라스마(鳥丸)거리'를 상업공간의 새로운 축으로 연결하는 도시구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그림 10> 시조가와라카치(四條河原町) 주변부 근대건축물 분포도 (실선-현재 상업 중심축, 점선-세로축 형성된 축, 점-주변부 근대건축물 분포현황)

디자인은, 'NTT 퍼실리티'¹⁸⁾가 맡아서 하되, 일본인의 선입견을 배제한 새로운 상업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유럽에서의 역사적 건축물의 리노베이션으로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리처드 로저스'¹⁹⁾ 파트너스 재팬과의 협동설계로 진행하게 된다. 1983년에 교토시의 등록문화재 1호로 등록된 '신푸우칸'은 「문화적 가치에서 중요한 요소는 현상 보존할 것」이라고 하는 방침을 기본으로 시대의 특징이 표현되는 외관과 구체를 가능한 한 남기고, 내진 벽을 넣고 구조적으로 보강한다.²⁰⁾

<표 1> 미나미자와 신푸우칸 건축 데이터 비교

	미나미자와(南座)		신푸우칸(新風館)	
	구/건물	신/건물	구/건물	신/건물
건물명	미나미자와(南座)	松竹주식회사	京都中央電話局	신푸우칸(新風館)
건설주	松竹주식회사	松竹주식회사	通信省	NTT 도시개발
준공 기일	1929	1992	1926.9/1931.1	2001
설계자	白波瀬直次郎	杉山隆건설 설계연구소	吉田鐵郎	NTT파사리티+리처드 로저스재팬
문화재 종류	국/등록문화재		시/등록문화재(1983.6)	

18) NTT도시개발'은 이후 'NTT 퍼실리티'로 이름이 바뀌었다.
 19) Richard Rogers(1933-)1933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남, 1954년-1954년에 걸쳐서 영국 AA스쿨에서 배우고, 1961년에 예일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침. 그 후, 1962년에 「팀4」설립, 1977년에 「리처드 로저스 파트너십/리처드 로저스 파트너십 재팬」을 설립한다. 주요한 작품으로 파리의 풍피두 센터(프랑스), 테크노플라자 센터(일본) 등이 있다.
 20) 石田潤一郎, 「リサイクル・アーキテクチャ ; 近代建築の保存と再生」, 「建築知識」, 2003. 6. 3, p.263

<표 2> 미나미좌의 공간적 변형과 디자인의 수법

	리노베이션-이전	리노베이션-이후	건축적 변화	디자인적 변화
지하 1층			뮤지컬도 가능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현대적인 장치로 무대 전체를 보강,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 때문에 무대를 1m올리는 구조변경을 한다. 세리는 1대에서 9대로, 하나미찌와 스펡 ²¹⁾ 은 1대에서 2대, 자동 회전전동을 설치로 다이나믹한 조적이 가능하도록 한다.	무대를 1m올리는 작업으로 무대 전면을 둘러싼 디자인 전부를 교체한다. 이 때문에 무대위에 장식되어 있던 지붕은 전면 교체하게 되나, 카라하(唐破)풍 ²²⁾ 으로 쇼인즈쿠리 이미지는 그대로 두면서, 근대적인 설비도입이 기본 디자인 방침.
1층			의자는 현대인의 몸에 맞추어 크게 교체하여 결과적으로 1,500석이었던 좌석이 1,090석으로 줄게 된다. 기존의 메인 로비 이외에 카와바타도리(川端通り)1층에 있던 식당이 폐지되고, 새로운 메인 로비를 두어 막간 사이에 관객이 여유 있게 쉬게 함.	카와바타도리(川端通り)쪽 로비는 유리문으로 칸막이를 다시 해서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으로부터 방음처리. 사자키 ²³⁾ 를 타타미 식에서 호리코다쓰(다리 놓는 부분을 파서 의자처럼 앉게 만든 분박이식 좌석공간)로 교체.
2층			기존의 화장실 중 일부를 왼쪽 로비 쪽에 위치한 식당자리로 확장해서 옮기고, 식당은 없애기로 한다. 화장실에 있던 자리에는 옆에 있던 매점을 확장하여 사용하게 한다. 오른쪽 로비 쪽에 있던 식당도 없애고, 기존의 로비를 확장해서 사용하게 한다.	2,3층에 있던 'c'자 모양의 사자키(타다미로 되어 있으면서 앉아서 카부키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전통식 좌석)를 전부 의자, 혹은 호리 코다쓰(다리 놓는 부분을 파서 좌석이면서 의자식으로 앉을 수 있게 만든 것)로 바꿈.
3층			공조가 없었던 낡은 건물이라, 공조시설을 추가할 공간이 없어서 관객이 다니지 않는 지하 통로를 이용하거나, 혹은 5각이나 6각형으로 접어서 간신히 접어 넣는 상태로 공조를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3층 관객실의 일부를 없애고 현대식 조명들을 조작하기 위한 조명실을 2배로 확장 이전하기로 한다.	격자천정의 이미지와 이전과 같은 디자인을 유지하지만, 전구 교체가 간단하고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디자인적으로 고려. 색채는 전체적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격자 부분은 인주 색으로 바꾸고, 격자 부분에 있던 금속 장식도 장인들의 조연과 협력으로 수복, 수선하도록 한다.
4층			4층의 배우 대기실의 일부를 없애고 대신 천정 조명을 매입하는 등 기존의 공간에 설비를 추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상데리아나 전구의 수리,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 배우 대기실도 양쪽으로 복도를 내고, 안전사고에 대비하면서 열악했던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한다.	천장고가 낮고, 노후 된 배우 대기실을 새롭게 디자인 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하였다. 전체적인 연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쪽의 1플로어를 내어서 보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4. 디자인 수법

4.1. 미나미좌

(1) 「동화」를 위한 변화

「미나미좌」는 교토의 랜드마크적인 존재로 관객은 물론, 카부키 배우, 일반 시민들 등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 왔다. 이러한 미나미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최대한 계승하면서, 시설과 설비는 가능한 한, 새롭게 하는 것, 즉, 건축물에 「동화」하는 디자인을 하는

- 21) 하나미찌(花通)-카부키에서 객석쪽으로 나 있는 무대와 연결되는 통로. 무대의 일부로 쓰이기도 함. 스펡(すっぽん)-하나미찌의 3분의 2지점에 배우가 하나미찌(花通)로 출입하기 위해 사용한 구멍(통로).
- 22) 중국의 당나라 시대의 건축양식을 말함.
- 23) 높게 만들어 놓아 무대가 잘 보이게 한 관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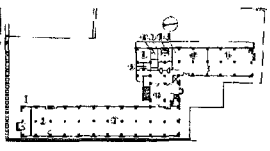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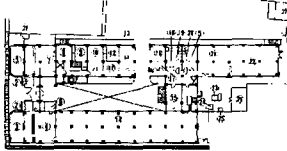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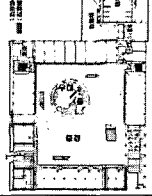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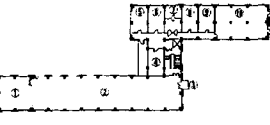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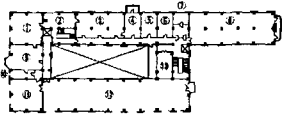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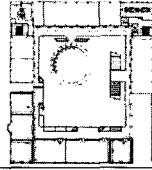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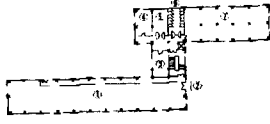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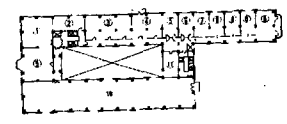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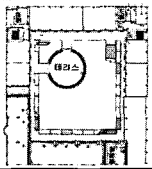
것이 이번 리노베이션의 최대 컨셉 이었다. 내부공간을 리노베이션 하면서 각 층별로 건축적 변화가 있었던 부분과 그에 따른 디자인 수법에 관해서 정리한 것이 <표 2>의 내용이며, 전반적인 디자인 수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건축외관의 경우에는 기존의 디자인을 최대한 살리면서 노후 된 지붕이나 부분적으로 손상된 곳을 수선하는 방향에 주안점을 두었다.

내부공간의 경우, 무대는 뮤지컬도 공연될 수 있도록 프로세니엄의 높이를 1m높인다. 그 때문에 무대위에 있던 중국풍 지붕도 같이 올리게 되어 지붕구조 자체를 변경, 보강하게 된다.

조명과 음향도 현대식으로 교체하게 되고 이로서 다양한 음향과 조명연출이 가능해져서 하이테크기기를 도입하고, 대형 스피커를 디자인적으로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기존의 무대 디자인에 맞추어 디자인을 변경한다. 이처럼 현대적인 조명을 추가

<표 3> 신풍관의 공간적 변형과 디자인의 수법

	리노베이션-이전, 1기	리노베이션-이전, 2기	리노베이션-이후	건축적 변화	디자인적 변화
1층				기존의 건물 중에서 카라스마 도리에 면해 있는 메인 파스드 부분의 'L'자 형태의 건물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철거한다.	기존 건물이 가지고 있던 중정형의 마당을 가운데 두고 있는 공간적 형태를 살리되, 중정을 더 크게 넓혀서 중심적인 공간이 되도록 한다.
2층				'L'자 형태의 건물만 남기고 철거하면서 계단부분도 같이 철거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ㄷ'자 형태의 건물을 따라서 가설 복도와 계단을 설치한다.	새롭게 첨부 되는 가설 복도와 계단은 재료에 있어서도 상반되는 철재를 사용하고, 색채에 있어서도, 칼라풀한 원색을 사용한다.
3층				원형 형태의 무대를 첨부하여 상업공간으로서의 많은 이벤트를 개최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의 중심을 만든다.	원형 무대의 경우에도 기존의 사각건물에서 형태적으로도 대립되는 원형을 사용하고 디자인과 마감재도 이질감을 주어 주목성을 준다.

하기 위해서 조명실은 기존보다 2배로 넓히고, 3층 객석을 일부 철거하고 이동시키게 된다.

공조는 닥트가 들어갈 만한 충분한 공간이 없었던 관계로, 천정의 작은 여유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간의 형태에 맞는 닥트를 접어서 집어넣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색채에 있어서는 4색을 기본으로 하였는데, 천정에는 옅은 아이보리에 격자로 된 부분은 붉은 인주 색, 벽은 옅은 그레이, 지붕이나 난간은 노송나무 색으로 정하였다.

(2) 「대비」을 위한 변화

‘미니미좌’의 공사가 끝이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미니미좌’가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사전의 요구조건 역시 디자인적인 변화와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후화됨과 동시에 새로운 시설의 도입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로 현대적인 극장시설의 도입을 위해서 건축의 외관을 제외한 내부공간의 많은 부분에 대대적으로 손이 가해졌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본 연구의 ‘3장 구 건축물의 역사적 의의 및 개수방침’에서도 주지한 바와 같이, 이번의 리노베이션 이전에도, 근대 이후에 3번에 걸쳐서 신축, 혹은 리노베이션 하는 과정²⁴⁾에서 긴 역사와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시 된 것은 경관과의 보존과 시민들의 기억이었다. 실제로 내부공간은 많은 부분 새롭게 변경되거나 교체되었으나, 공간적인 배치와 디자인적인 형태와 마감재에 있어서는 철저히 보존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2 신푸우칸

(1) 전통과 혁신의 「대립」

디자인 테마는 「전통」과 「혁신」의 대비와 융합으로, 외관과 기존 건물의 컨텍스트는 남기면서 신/구 건물이 좋은 밸런스를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 하는 것을 모색했다. ‘L’자형의 기존 건물을 남기면서 ‘ㄷ’자형의 증축건물을 조합시켜 중정을 ‘ㄷ’자형에 둘러싸인 배치를 하도록 하고, 중심성·구심성을 가진 공간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외관과 내부 공간의 극적 장면전환을 연출하는 등, 놀람과 감동을 주어, 마음속에 남는 공간을 목표로 하였다.

신푸우칸의 공간적 변형과 디자인 수법을 정리한 것이 표3이며, 그 결과의 리노베이션의 기본 개념²⁵⁾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3층까지 연결하는 아치창은 답습하도록 한다.

-증축부분은, 새로운 것을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로의 솔직함」으로서 철골과 ALC를 사용할 것

-신/구 건물을 회랑으로 연결할 것.

‘L’자형으로 기존 건물을 남기는 과정에서 옥탑부분에 있던 휴게공간과, 계단실을 같이 철거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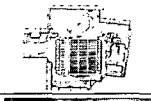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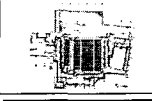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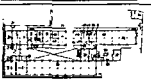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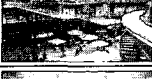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기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아치로 된 창은 구건물의 아름다운 특징임으로 살릴 것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한 것이며, 철골조의 회랑의 경우에는 「대비·융합」이라는 방향성으로 설계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디자인 컨셉²⁶⁾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5)日経建築アーキテクチャー, 2001年3月5日, p.21

26)京都烏丸商業施設「新風館, 開發概要Ⅰ」NTT都市開發關西支店, 2002年

24)〈그림 7, 8, 9〉참고

<표 4> 내부공간과 디자인의 수법의 관계

		미나미좌 (南座)					
		사진		보존		변형	
		리노베이션/이전	리노베이션/이후	건축적 보존	디자인적 보존	확장	재구성
경관	주변경관			등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미나미좌 이외에도 왼쪽에 보너스 레스토랑 3조의 도시풍경의 중요한 부분.	외관의 디자인은 철저히 보존되어 있다. 일부 금속 장식의 새롭게 제작되는 변화들 보이나, 디자인은 계승.	변화 없음.	금속 장식물의 복원 및 정비.
건축	파사드			건축적으로 외관은 그리 변한 것은 없으나, 훼손이 많았던 지붕 부분은 이번 기회에 새롭게 수리. 반대로 수리와 복구할 위주로 공사가 진행됨.	전체적으로 디자인적인 변화 없이 기존의 디자인을 보존하나, 부분적으로는 새롭게 추가 되는 부분을 삽입하면서 재연성하였다.	변화 없음.	변화 없음.
	공간적인 변화			건축공간의 개념과 구성은 보존되나, 내부공간은 많이 변형 됨.	실제로는 공간이 전면적으로 새롭게 구성되어 지나, 디자인은 철저히 기존 디자인에 맞추어서 융화하는 디자인.	변화 없음.	평면도상의 공간적 변화는 없음. 다만 무대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공간적 변형은 없지만, 실제로는 거의 새롭게 신축 변경되었음.
내부공간	출입구			주출입구는 그대로 사용하나, 카바리도리 쪽 출입구는 장애자용 슬로프 설치 (전철이 지하철로 바뀌어 여유가 생긴 공간을 활용)	출입구 역시 디자인적으로는 기존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함. 다만 출입구 부분의 카펫 등의 부분적인 마감재는 새롭게 변경, 개수.	변화 없음.	변화 없음.
	문, 창호			창호와 문, 그리고 램프(문위에 달린 장식 분)는 교체기 필요를 가결하여 새롭게 교체.	이전과 같게 보이지만 사실은 노후화 된 문과 창호는 알루미늄으로 바꿈과 동시에 문양의 스케일이 조금 작아짐.	변화 없음.	금속 부분은 상당한 부분이 새롭게 수리 혹은 수선 된 곳이 많음.
	내부공간의 공간적 변형			공간적으로 구조체를 제외하고 많이 변형되나, 디자인은 계승.	디자인은 기존의 디자인을 고증하여 수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하위, 색상등 있어서는 조금씩의 변화를 줌.	설비와 시설, 좌석을 현대화 함.	내부공간에서 무대를 1m정도 올리는 등 음향과 조명에 있어서 전격적인 교체작업이 이루어 진다.
	내부공간의 디자인적 변형			계단의 위치나 구조 등 공간적인 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계단홀 앞 로비 부분의 용도는 변경됨.	디자인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최대한 모양이나 장식은 전문 장인이거나 공예가들의 조연과 함께 수복	변화 없음.	변화 없음.
신우극장 (新風館)							
경관	주변경관			구건물의 옆으로 일본의 도시형 전통 가옥들이 형태적으로는 다소 이질적으로 보이나, 높이가 같은 레벨로 되어 있어 연성감 있는 풍경	파사드 디자인은 원형을 그대로 보존. 다만, 기존의 메인 출입구 외에 하나를 별도로 더 두고, 이 부분은 대비하는 디자인 적용.	변화 없음	변화 없음
건축	파사드			구신우극장 옥탑부의 일부분에 있던 4층 부분은 철거한다. 인면용 4각형의 매스의 형태로 단수하게 처리한다.	외관의 파사드는 철저히 원형을 살리는 디자인을 기본으로 한다. 깃발을 걸어서 상업공간임을 알리는 정도.	변화 없음.	변화 없음.
	공간적 변화			'L'자형테란 남기고, 대부분 철거함.	외부 파사드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변형.	기본적으로 '모'자 형태의 평면을 하고 있지만, 'L'자 형태의 도로면의 파사드 부분을 제외하고는 철거한다.	남기는 'L'자에서 중정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나머지 부분을 '모'자가 되게 새롭게 구축한다.
내부공간	출입구			구건물 사진에서와 같이 전화국이였기에 오픈 되어 있는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업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구 생성.	구건물에서 그대로 사용. 출입구로서 그대로 사용.	기존의 출입구가 패쇄적이어서, 상업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메인 출입구는 별도로 둠.	기존의 출입구도 사용하면서, 건물 옆쪽으로 전면 유리틀 사용한 현대적인 감각의 넓은 출입구를 만들어, 새로운 공간이 미지름 줌.
	문, 창호			잘 보존 됨.	잘 보존 됨.	구건물의 특징인 원형 창은 그대로 보존하는 방침. 그러나 계단 부분이 철거로 바닥의 레벨을 창문레벨에 맞추고 가설계단 설치.	변화 없음.
	내부공간의 공간적 변형			기존의 건축물의 중정 보다 넓어짐.	중정의 개념이나 용도에 있어서 변화 됨.	'모'자 형태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으나, 좁고 답답한 느낌. 왼쪽을 건물용 철거하고 넓은 중정을 가운데 두어서 개방감을 강조.	건물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이벤트가 열릴 수 있도록, 중정용 두고 무대와 홀을 컬러풀하게 색채디자인 하여 새로운 활기를 줌.
	내부공간의 디자인적 변형			창호나 일부(돌출 창이 있던 부분)를 제외하고는 크게 변형 됨.	기존의 건물이 오픈스 공간이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크게 변형 됨.	바닥 레벨을 창호 레벨로 맞추고 창호를 주 출입구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공간은 공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음	창호의 형태는 남아 있으나, 임대 상업공간이므로 내부공간의 디자인적 의장은 남아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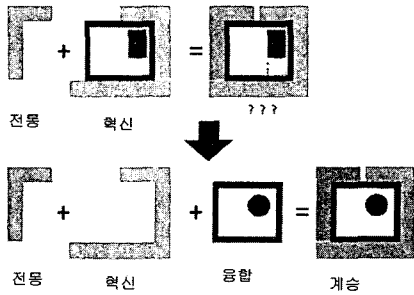
(a)발상의 원점은 타이쇼 시대의 末期에 지어진 보존건물이 라는 것이다. 이 역사적 의장을 가진 오래된 건물에 대하여 항상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식한 건물을 부가하고, 「전통과 혁신」의 「대비와 융합」을 테마로 한다.

(b)복도와 계단은 중정공간과 각 점포를 평면적으로도 입체적으로도 봉합한 스페이스이면서, 회유성을 확보하면서 중정에 접하고 있는 전시공간으로도 가능할 것. 또한 공간에 입체감과 약동감을 줄 것.

(c)복도와 계단을 지지하는 구조체인 프레임과 이 프레임이 만들어 내는 애매한 공간이 중정과 각 점포를 매개하는 영역을

7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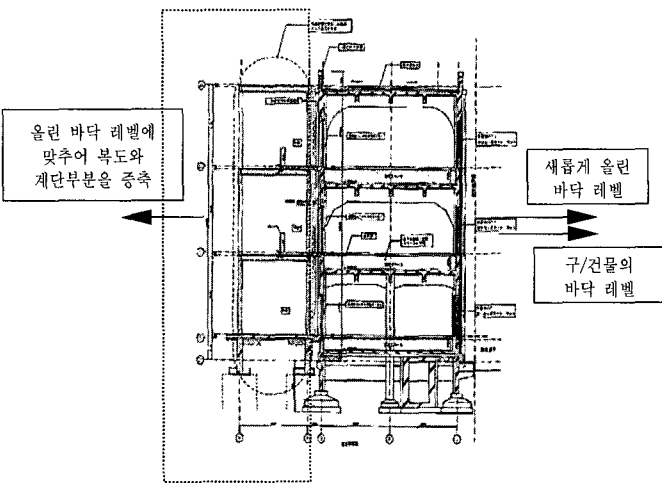
만들어 낼 것이며 <그림 11>은 이상과 같은 컨셉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11> 신풍관의 리노베이션 개념도

(2) '경관'과 '파사드'의 '동화'

신푸우칸의 경우에는, 카라스마도리에서 보이는 외관에는 구 건물이 가지고 있던 건축적 디자인에서 그리 벗어나 보이지 않도록 건축물의 파사드는 철저히 보존하고 있으나, 내부공간은 임대용 상업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변화가 필수 불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口'형태로 구성된 건물을 'ㄷ'자 형태 부분만 남기고 중정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심 공간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는 중정의 실내공간화로 근대건축이 가지고 있는 의장적인 파사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최근에 일본의 다른 사례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5m라는 높은 천정높이를 이용하여, 바닥레벨을 올리고 기존의 창문을 출입구로 활용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ㄷ'자 형태로 건물을 남기면서, 계단실이 철거된 것을 역으로 이용한 것으로 철골로 복도와 계단을 증축하고 지진에 대비하기 위하여 독립된 구조를 갖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12> 신푸우칸 단면도

5. 결론

각각의 사례는 3개의 분석의 틀(경관, 건축, 내부 공간)로 나누고, 건축은 다시 파사드와 공간적인 변화로, 내부공간은 출입구와 문/창호, 내부공간의 공간적 변형, 내부공간의 디자인적 변형으로 나누어 분석한 것을 <표 4>로 정리하였다.

'미나미좌'는 건물의 노후화와 시설의 정비를 위해 신축이 요구되나, 주변경관과 시민들의 기억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여 보존을 결정한다. 이러한 보존의 목적은 디자인을 구 건축물에 「동화」하는 디자인 수법을 선택하나, 사실상 내부공간은 전면적으로 개조된다.

'신푸우칸'은 시대적 요구의 변화와 더불어 더 이상 사용이 필요 없어진 구 전화교환소를 재활용하기 위해 기획된다. 융합과 대비라는 디자인 컨셉을 위해 이질적인 디자인을 도입하나 경관보존을 위해서 외관은 철저히 보존한다.

각각의 사례는 근대건축이 가지고 있는 의장적인 특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으로 「新」 「久」가 대립, 융화하는 방법을 적용하나, 왜 개조가 요구되었는가, 그리고 새로운 용도에 따라서, 「동화」와 「대비」의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디자인적인 필요에 의해 「동화」와 「대비」하는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 건축물의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 주변경관, 일반 시민들의 기억을 충분히 배려한 후, 보존되어야 할 부분과 변용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한 이후에 디자인적 수법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단순히 디자인 수법을 「동화」와 「대비」로 나누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겠다. 근대건축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자인적 방법과 수법을 구사할 때 비로소 내부공간이 「역사」와 「현대」를 매개하는 매개체로서 리노베이션 이후의 건축물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石田潤一郎, ある挽歌のために-南座, 商店建築, 1989. 12
2. 石田潤一郎, 리사이클·아키텍처 ; 近代建築の保存と再生, 建築知識, 2003. 6. 3
4. 京都・南座の記録 出版委員會 編, 京都・南座の記録, 株式會社六
5. 南座, 文獻書院, 堂本寒星, 1929
6. 田原幸夫, 建築の保存デザイン, 學藝出版社 2003
7. 大河直躬, 歴史的遺産の保存と活用まちづくり, 學藝出版社, 1997
8. 京都烏丸商業施設「新風館」開發概要 I (NTT都市開發關西支店, 2002年 7月 19日)

<접수 : 2006. 8. 31>